

당뇨병의 조기발견중 가장 많은 것이 집단검진으로 요당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다. 당뇨병때에는 요당이 양성(陽性)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요당이 양성이라고 전부가 당뇨병인 것은 아니다. 당뇨병이 아니면서도 임신(妊娠), 내분비질환, 간병(肝病) 등 때에 요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포도당부하시험(負荷試驗)”이란 검사를 시행

하여 혈액중의 포도당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요당 뿐만 아니라 이 혈당값(血糖值)에 따라서 당뇨병이냐 아니냐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다. 혈당량이 정상보다 많으면서 요당이 양성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확실히 내려진다.

〈필자=을지병원 당뇨병클리닉
내과부장·의박〉

부인암의 조기 발견



— 암의 특이성 —

생명있는 모든 존재는 한번왔다 한번 가는것은 정리(定理)라하겠으나 사람의 경우 사망의 원인은 노쇠로 자연사하는것 보다는 종말에는 병들어 병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천수는 100여년이 된다고 하며 최근의 이웃 일

홍 성 봉

본의 국제조사의 보고는 100세가 넘는 사람이 여자는 5,000여명 남자는 1,0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지의 발달이 가속화한 결과 의학의 발전, 생활환경의 향상과 개선은 인간의 수명의 연장이란 복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평균수명은 70을 초과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2차세계대전후의 사망률의 감소에 연유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많은 질병들을 박멸하였거나, 예방, 치료가 가능하게 된 까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러한 개선의 구체적인 설명은 주로 감염성질환(感染性疾患)의 감소에 따른 사망률감소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주변의 생활 변천에서도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몇십년전만해도 「학질 켜다」라는 표현을 고질적인 난문제를 해결했을때 비유로 쓴 말인데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기를 매체로한 「말라리아」라는 병을 지칭하는 것인데, 오늘날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니 그러한 비유는 젊은 세대에서는 실감이 안날 것입니다. 또 한 예로는 민속가면극에 흔히 등장하는 곰보가면은 흘러간 지난 세월의 천연두가 우리생활의 주변에 같이 존재했을 시절에는 공감있는 질병이었으나 지금은 주변에서 곰보의 면모는 사라져갔기에 수년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의 소멸을 천명한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망원인으로서의 감염성질환은 자취를 감추거나 감소된 대신 대두된 질병들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교통사고, 그리고 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서는 모두가 비천연성질환 또는 노인병의 대표적인 것이니 수명연장에 따른 피치못할 결과라고도 설명할 수 있으나 고도산업화

에 따른 공해와도 일맥을 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암은 요사히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 「암적 존재」라는 말과 같이 인력으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점에 우리의 관심은 그만큼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은 현재로서는 의학의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데 질병의 중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암은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에 대처할 치료법 역시 완전치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널리 알고 있는 암의 특징은 암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씨를 뿌리듯 옮겨가서 인체의 요소요소마다 암을 발생케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는 전이(轉移)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위암, 간암, 자궁암, 폐암, 피부암, 온몸에 암은 발생할 수 있는것 입니다.

암의 극복은 다른 의학의 원칙과 같이 예방, 조기진단, 치료로 분류해서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우선 암의 예방이란 문제는 암의 정체를 구명치 못한 마당에 명확한 방법은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발암물질이란 암을 발생케하는 물질이 판명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발암물질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그 예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도 식품첨가제로서 발암성분이 있다하여 식품생산에서 이러한 약품을 금지 한다든가 특히 담배는 오랜 조사연구결과 폐암과 관계가 깊다하여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심심치 않게 된장의 곰팡이 종류가 위암과 연관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체가 규명안된 현실로서는 획일적인 예방법의 마련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부인암의 조기진단 —

이상과 같이 예방은 최선의 방법인데도 현재로서는 뚜렷한 예방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바로 암의 조기발견입니다. 마치 화재의 경우 우선 불조심으로 화재의 예방이 으뜸이며 불이 나면 조기발견하는 것이 차선책(次善策)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불치병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초기암 특히 부인암의 초기인 영기암(零期癌)은 100% 치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암의 조기진단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부인암은 다른 부위, 예컨대 위암, 폐암, 간암과는 달리 의사가 손쉽게 육안으로 볼수가 있고 「그리스」태생의 파파니코로우의 개발로 자궁에서 탈락한 세포로

서도 간단하게 암의 진단이 가능하게 된 까닭에 인체의 암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일찍부터 그 진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종합병원은 물론 개인산부인과에서도 부인암검사를 시작하기도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암검사는 탈락세포를 채취하면 그만인 까닭에 질내에서 분비물(냉)만 채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장, 폐간등의 암검사는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닌것입니다.

— 부인암 검사의 시기 —

미국의 조사결과로는 부인암중 경부암영기는 25세부터 3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좀 진행된 1기암이상은 40대 후반에서 가장 빈발하고 자궁체부암은 이보다 더 고령층에서 발견되는 까닭에 대개는 35세를 기준으로 속칭 세포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는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므로 30세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인암조기진단의 방법은 타장기의 암검사와는 달리 간단하고 환자에게는 고통이 없는 절차인 까닭에 30대 후반의 부인은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 세포검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는 이 세포검사결과가

정상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 격으로 반복 검사해도 무방하다고 하나 우리실정으로는 6개월마다 검사를 권고하여도 번잡한 주부생활과 실지 영기암 또는 1기암에는 자각증세란 없는 까닭에 몇년만에 다시오는 사례가 비일비재인 현실로 보아 6개월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조직검사 —

세포검사는 진찰로는 별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지만 만일 자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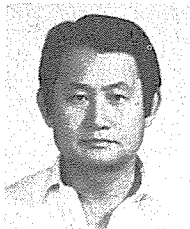
에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역시 간단하고 별로 고통이 없는 방법이므로 주저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요컨대 부인암은 다른 암검사와는 달리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초기에 진단만 되면 치유 100%의 효과가 보장되는 까닭에 30대 후반의 부인은 반드시 정기세포검사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필자=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의박>

肝炎의 原因과 發見

金 官 曄



간염(肝炎)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지금까지는 A형, B형 그리고 非A非B형(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뜻)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들 간염은 전염경로가 서로 다르고 병의 경과나 예후(予後)는 다르지만 증세는 비슷하고 치료도 별로 큰 차이는 없다. A형은 쉽게 낫고 非A非B형도 만성형으로 옮겨가는율이 적어 사실상 큰 걱정은 없으나 B형은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만성형으로 옮겨가서 몇년을 앓게 되거나 혹은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